조운동네 종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5년 10월 19호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우리동네 기억지도 8

조운 친구들 10

인턴 인터뷰 12

조운동네 이런일이 15

우리는 즐겁게 16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5년 10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꽃집을 하고 싶어요

꽃이야기_정명숙

시청 앞에 위치한 꽃집 '정명숙의 꽃이야기'는 1998년에 문을 열었다. 정명숙 씨는 당시 유행하던 동양꽃꽂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꽃의 매력에 푹 빠졌고, '이 길이라면 오래 걸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자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꽃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꽃이야기는 어느덧 27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명숙 씨는 "손님이 믿고 맡긴 만큼 돌려주는 게 꽃을 다루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책임감이 오랜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꽃길을 가꿀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다.

정명숙 씨는 국내 화훼장식 기능 경기대회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길러내는 한편, 각종 전시와 박람회에도 작품을 꾸준히 출품해 왔다. 일본 오키나와 세계대회에서는 직접 재료를 구해 준비한 테이블 장식으로 금메달을 수상했다. 단상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던 순간은 지금도 가장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 국제 무대에도 도전해 동양인 최초 참가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꽃은 제게 생업이자
동시에 예술 활동이에요.
덕분에 전세계를 다녀왔죠."**



세월이 흘러도 꽃을 만지는 일은 여전히 즐겁다. 새벽 시장에서 꽃을 들여오고, 가게 문을 열어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생들과 함께 꽃을 다루는 시간도 소중한 보람이다. 정명숙 씨는 "싫어하는 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흔히 쓰이는 장미와 안개꽃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새로운 이야기를 품는다. 오랜 시간 꽃을 다루며 깨달은 건 특별한 한 송이보다, 여러 꽃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꽃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한결 넉넉해졌다. "여전히 꽃을 만지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라는 고백 속에서 평생 꽃과 함께 해 온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꽃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싱싱하죠

플로아트_박현아

플로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꽃 냉장고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꽃집은 냉장고를 두고 꽃의 수명을 관리하지만, 박현아 씨는 오히려 그것이 꽃을 더 빨리 시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냉장과 실내의 온도 차 때문에 꽃이 충격을 받아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꽃시장에서 직접 꽃을 들여와 자연 온도 속에서 관리한다. 물론 여름철에는 관리가 쉽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꽃이 가진 자연스러움과 생명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고객들 역시 이 점을 알아보고 "여기 꽃이 유난히 싱싱하다"는 말을 자주 건넨다. 차갑게 얼려두지 않고, 손길과 정성으로 지켜낸 꽃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현아 씨는 원래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 그러다 꽃꽂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꽃과 더 깊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의를 통해 꽃을 접했지만, 지금은 가게를 운영한 지도 14년째다. 꽃을 만진 세월만 따지면 무려 30년이 넘는다. 오랜 경험에서 쌓인 감각은 고객들의 신뢰로 이어진다.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플로아트를 꾸준히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세월과 정성이 녹아 있는 집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박현아 대표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면 꽃이 제 삶을 이끌어왔다"고 고백한다.

"큰 꽃은 큰 꽃대로,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예뻐요"



박현아 씨에게 꽃의 크기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대형 꽃도, 여리여리한 작은 꽃도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이 있다. 큰 꽃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고, 작은 꽃은 수수하게 배경을 받쳐주며 더 빛난다. 결국 꽃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특정 유행이나 값비싼 품종에만 눈길을 두기보다, 지금 손에 있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내는 것이 플로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이기도 하다. 플로아트의 꽃다발에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이유다.



꽃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온화에요.

온화_노은솔

노은솔 씨가 '온화'를 연 건 2021년이다. 결혼을 계기로 춘천에 정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꽃집을 열었다. 낯선 도시에서 가게 자리를 찾을 때, 일부러 너무 번화가가 아닌 곳을 골랐다. 병원과 공공기관이 모여 있고 젊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요선동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꽃 스타일을 좋아해 줄 손님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개업 초기에는 "구시가지에서 꽃집이 잘될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노은솔 씨는 단골을 만들면 될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손님보다 한 번 만족한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꽃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온화'는 조금씩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온화'의 주 고객층은 20대에서 40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맞춰 꽃을 찾는 경우가 많다. 꽃집은 '단골 장사'다. 손님이 원하는 순간마다 만족을 드려야 다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최대한 정성을 다해 꽃을 고르고, 물가 상승이 잦은 요즘,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도 작년과 비교해 가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작은 꽃집일수록 손님 한 명 한 명과의 신뢰가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화려한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요청이 있으면 유연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꽃을 만든다.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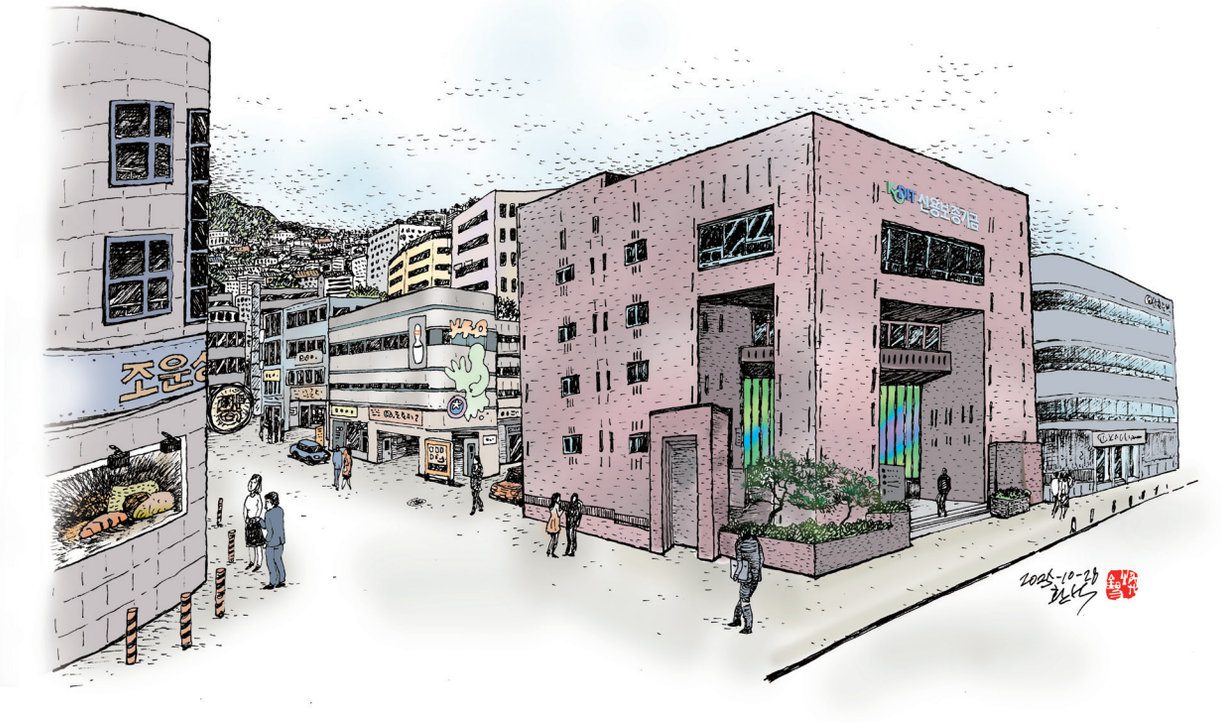


라넌큘러스는 겨울에 피는 꽃이다. 이 꽃은 겹겹이 포개진 꽃잎이 한없이 펼쳐지며 작은 꽃송이가 풍성한 볼륨을 만들어낸다. 노은솔 씨는 자신의 결혼식 부케를 라넌큘러스로만 채웠다. 다른 장식은 배제하고 풀만 살짝 곁들인 단정한 구성으로, 화려한 장식보다 꽃 자체가 가진 힘을 믿고, 군더더기 없이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었다. 어떤 꽃을 쓰느냐보다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노은솔 씨는 값비싼 꽃이나 희귀한 꽃이 아니더라도 손에 쥔 재료를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내는 데 집중한다. 온화라는 이름처럼 꽃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조화가 깃들어 있다.

우리동네 기억지도

춘천신용보증기금

도심속 현대미술관 같은



춘천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의 작품 중 하나로, 시청이 위치한 춘천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김수근은 한국 현대 건축의 큰 흐름을 만든 인물로, 국립극장 등 굵직한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다. 춘천의 신용보증기금 역시 그의 작품답게 단순한 사무 건물이 아니라, 공간과 빛을 다루는 독특한 미학을 보여준다.

이 건물은 당시 춘천이 강원도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커 나가던 시기에 세워졌다. 1970~80년대 춘천은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가장 활기가 넘쳤는데, 중앙시장, 소양극장, 그리고 많은 상가들과 카페 등이 모여 있었다. 김수근의 건물은 그 복잡한 상업 거리 속에서도 차분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춘천시민들에게는'도시 속 현대미술관'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김수근의 설계는 늘 주변 맥락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춘천신용보증기금 또한 명동 골목의 활기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조용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콘크리트의 질감과 단순한 형태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도시의 흐름 속에 고유한 질서를 세우려는 그의 의도가 배어 있다.

이 건물이 들어선 자리 주변은 오래전부터 춘천의 '새명동'으로 불리던 곳과 맞닿아 있다. 구 명동(명동거리)이 주로 오래된 극장, 다방, 상점이 중심이었다면, 새명동은 1980년대 들어서 새로 개척된 상권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최신식 옷가게와 음악다방, 젊은이들의 데이트 공간이 즐비했던 곳이었다. 당시 춘천의 청춘들이 약속을 잡으면 으레 새명동에서 만나고, 극장이나 다방을 거쳐 호반의 밤거리를 걸었다.

오늘날 새명동은 예전 같은 활기는 덜하지만, 여전히 춘천 도심의 중요한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다. 그 속에 남아 있는 김수근의 신용보증기금 건물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한국 현대 건축사의 한 장면을 품은 건축 유산이자, 춘천 청춘들의 거리였던 새명동의 풍경을 증언하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춘천사옥은 1981년 준공되어 계속 사용하다 건물과 설비의 노후화 개선 및 창업공간 지원을 위해서 2022년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본 사옥이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는 춘천시와 건축계의 의견에 호응하여 외관의 재료와 형태는 최대한 보존하고 최초 설계의도를 최대한 반영,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사옥 내부 복도에는 별도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최초준공때부터 리모델링한 시기까지의 기록을 아카이빙하고 있다.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하여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다만, 춘천시민이 이 건물의 가치를 알고 전시공간을 편하게 드나들며 이 건축물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아쉬웠다.

글_도서출판 산책 원미경

조운 친구들



배움에서 나눔으로 천 위에 그려낸 열정



천아트공방
문정숙 작가

피아노에서 천아트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원래 피아노 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음악은 익숙했지만 그림에도 늘 끌렸죠. 학원 운영 중에도 수채화를 배우며 미술 공부를 이어갔고, 결국 51세에 미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61세에는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집에서 피아노와 미술을 개인 지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천아트를 만났습니다. 그림을 액자에 두는 것보다 가방이나 쿠션에 담아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모여 수업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석고데생과 수채화, 아동 미술, 심리 미술을 공부했고, 문인화와 서예, 캘리그라피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천아트는 2급부터 시작해 결국 1급 자격증을 따고 송곡대학교에서 정식 강의도 맡게 됐습니다. 강원도여류서예가협회에 가입해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일본 도야마현 교류전에도 직접 나갔습니다. 지금은 상상언더그라운드 공방에서 그림과 글씨, 천아트를 접목한 수업을 열고 있어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이곳이 단순히 작업실을 넘어 '쉼터'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관리비가 저렴하고 마음껏 펼쳐놓고 작업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찾아오는 누구든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료비만 내면 참여할 수 있는 천아트 원데이 클래스, 캘리그라피 무료 체험교실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에요. 앞으로는 문하생들과 함께 상상언더그라운드 전시 공간을 활용해 천아트와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림과 글씨가 만난 작품을 가방이나 쿠션 같은 생활 소품에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과서 속 내용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부동산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원 씨는 도시재생 분야에 유독 마음이 끌렸고, 조운동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짧은 인터뷰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지원 씨는 도시재생에 대해 특히 진심이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설계하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지원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운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부동산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보통 부동산 전공은 개발이나 금융 쪽이 중심인데, 저는 이상하게 도시계획이나 재생 쪽이 더 끌리더라고요. 학교에서 '도시재생론' 같은 수업을 듣긴 했는데, 그냥 개념만 배우니까 뭔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딱 이 인턴십을 알게 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지원했고요. 제 진로를 시험해볼 수 있는 첫 경험이라 그런지, 진짜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운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인턴십을 해보니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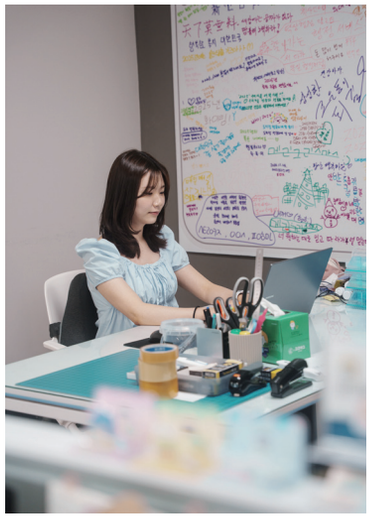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개념을 외우고 시험을 보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부동산학과 커리큘럼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은 단 두 개뿐이라, 아쉽기도 했고요. 반면 현장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공간을 직접 둘러보는 경험이 중요했어요. 책에서 읽을 땐 그냥 사례처럼 느껴졌는데, 현장을 겪어보니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어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이 얽힌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센터 홍보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제안해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조운동 카페 탐방 릴스' 기획이에요. 센터 SNS가 글과 사진 위주라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골목 곳곳에 매력적인 카페들이 많은데, 그 공간을 영상으로 소개하면 재생 사업의 비전인 '문화가 숨 쉬는 동네'와 잘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편집 중이지만, 완성되면 조운동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카페 '뮤즈 앤 브루'의 사장님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어설프게나마 인터뷰를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지시되는 하향식 구조를 따르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곳에서 살아가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도시재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작은 의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이번 인턴이 저의 첫 사회생활 경험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코디님들이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부담 없이 배우고,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계속 길을 찾고 싶어요. 특히 정책 설계에서 주민 의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부산 감천마을처럼 성공도 있지만 갈등도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주민 삶과 도시 활력이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언젠가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조운동네 이런일이



춘천의 아리랑을 춤추다, 아리솔 무용단



아리솔 무용단은 최근 춘천시립국악단과 김유정문학촌이 공동 기획한 공연 '춘천의 아리랑, 김유정의 노래'에 참여해 무대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소숙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아리솔 무용단은 경기민요 57호 전수자들로 꾸려져 무용과 민요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는 드문 예술단입니다. 2016년 창단되어 최근에는 춘천 지하도상가의 소공연장에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두 차례의 정기발표회를 비롯해 닭갈비축제, 경로당 봉사, 해외공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춘천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숙희 대표는 "작은 동아리들이 연습 공간을 찾기 힘든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줘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9월 24일부터 27일,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진행되었으며,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 권역 내 운영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만큼 춘천시에서도 단독 홍보부스를 준비하여 참여했는데요. 조운소양동을 비롯해 약사명동,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용과 주민 성과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정보 공유, 기념품 배부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도시재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춘천시 부스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가 10월 24일, 25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권역 상가와 함께하는 미식 연회장, 조운미식회부터 로컬 브랜드 초청 팝업스토어, 문화체험, 도시재생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개막 퍼레이드, 매직쇼 등 화려한 공연 퍼포먼스와 각종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45-5264 이경은 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정기대관

2026년 갤러리상상언더 정기대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대관 신청을 진행해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지하도상가 남부로 끝에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운동네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청년인턴 해커톤

10월 30일, 31일 2025 도시재생 청년인턴 해커톤이 진행됩니다. 지난 6월부터 센터에서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달려온 인턴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에요. 바쁜 업무 와중에도 틈틈이 준비한 아이디어로 발표하게 될 텐데요. 과연 올해의 대상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10/1~10/15	2025 思人展
·10/16~10/23	우리들의 행복한 일상
·11/1~11/15	2025 특종·보도 사진전
·11/16~11/30	2025 소수동인전 창립전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2025 대한민국 도시 · 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개최된 도시는?



조운동네 좋은소식 19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5년 10월 15일 부터 31일까지
발표	2025년 11월 07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